은해사 소청, 취하로 종결…성로 스님 임명

진우 스님, 3월 26일 임명장
"교구 안정 · 우려 불식에 최선"
진우 스님 "선거 제도 정비"
재심호계원, 24일 심리 종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로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에 성로 스님이 임명됐다. 주지후보 선거를 둘러싸고 2개월여간 이어진 갈등이 마무리된 만큼 성로 스님은 교구 운영 정상화와 대중 신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로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은해사 주지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은해사는 그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스님이 애써 주고 성로 스님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종단 안정과 화합의 방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비 온 뒤 땅이 굳듯, 본사 주지로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느 교구본사보다 화합적이고 모범적인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은해사를 걱정하고 응원해 온 사부대중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은해사 선거를 종단 제도 정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스님은 "은해사는 물론 종단 전체로도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다"며 "이런 과정이 종단 시스템을 보완하고 내부적 미비점을 세밀하게 개선해 나가는 데 큰 경험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성로 스님은 "종단 어른 스님들과 사부대중의 우려를 깊이 새겨 종단과 은해사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총무원장 스님 말씀 잘 새겨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주지 임명은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을 둘러싼 선거소청 상소가 원고 덕관 스님의 상소 취하로 종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70차 심판부를 열고 전날(3월 23일) 덕관 스님이 제출한 상소 취하서를 받아들여 심리 종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은해사 주지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은해사 산중총회에서 성로 스님이 주지 후보로 선출되자, 덕관 스님이 비밀투표 위반 등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2월 20일 해당 소청을 기각했으며, 덕관 스님은 같은 날 재심호계원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재심호계원은 2월 23일 사건을 접수한 뒤 3월 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해 왔다.

진우 스님, 장학승 33명에 "사회 기여" 당부

3월 25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국외 2 · 국내 18 · 승가대 13명 등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불기 2570(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승으로 선발된 3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사진〉

올해 선발된 장학승은 국외 2명, 국내 18명, 사찰 승가대학원 13명 총 33명이다. 장학생들은 사찰 승가대학원과 불교 종립대학원, 일반 대학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불교학 △초기불교 △계율 △한문불전 번역 △선 △명상수행 △상담 △심리 등을 전공하고 있다. 장학금은 재학 기간 중 최대 4년까지 지원된다. 석사과정은 최대 4년, 석·박사 통합 및 박사과정은 최대 8년 이내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종교학 석사 후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박사과정 중인 등명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선학 박사과정 일라 스님, 고려대 불교문화의례 박사과정 덕현 스님,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지원 스님,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 덕민 스님이 참석해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진우 스님은 "선발된 장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학문과 수행에 정진해 교학 연구와 포교, 역경, 선명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단과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면서 "불교의 지혜와 수행 전통이 현대사회 속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실천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의 종단 장학승은 올해 신규 선발된 3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41명의 장학승이 배출됐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정묵 스님)가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 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임은호 기자

진각종, 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서원불사

3월 23일 전승관 무진설법전
능원 정사 "100년 비전 실현"
창종 기념사업 원만성취 기원


진각종은 3월 2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관 1층 무진설법전에서 '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서원불사'를 봉행했다. 사진은 축하 떡 커팅식 모습.

2027년 창종 80주년을 맞는 진각종이 창종 기념사업의 원만성취를 서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3월 2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관 1층 무진설법전에서 '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원만서원불사'를 봉행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창종 기념사업들의 원만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석에는 진각종 주요 지도자들과 지역 주요 인사, 종단 신교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주요 사업 계획을 언급하며 종단 100년 비전 실현을 위해 정진할 뜻을 밝혔다. 능원 정사는 "80이라는 숫자는 연결고리처럼 이어진 두루두루 소통하는 형상이며 눕혀서 보면 무한대로 뻗어 나는 모양새"라면서 "창종 80주년을 맞이한 종단은 역사적 인연을 계승해서 문화로 결실 맺고 감동교화로 새 시대를 여는 인연 지음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올해 내로 진행될 문화법인 설립에 대해 "진언 염송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찾고 수행으로 실참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문화를 개발해 시현할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진각차명상, 진각문학명상 등을 개발하고 실험하면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문화법인 설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종단에서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을 먼저 문화법인에서 개발하고 실험함으로써 차후 종단에서 보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정법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진각 80주년 기념사업은 참여와 화합의 진정한 의미와 나눔과 동행이 주는 진정한 감동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인연불사가 되고자 한다"면서 "진각은 이제 여명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서면서 100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향하고 있는 만큼 진각행자 한 명 한 명이 종조 회당의 화현이 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진호국가불사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종단 신교도를 대표해 일지성 총금강회장은 서심결정문을 낭독했다. 일지성 총금강회장은 "전국 교구의 금강회장을 비롯한 모든 신교도와 함께 소중한 이번 기념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원만히 봉행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혜와 정성을 보탤 것을 법신불전에 굳게 맹서한다"고 적극적인 사업 동참을 약속했다.

앞서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진각종 창종 80주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축하하며 불사의 원만성취를 함께 기원했다.

신중일 기자

운경 스님 "수계, 참불자 되는 서원"

서대문구청 불심회 춘계법회서
백미 100포 및 후원금도 전달



서울 서대문구청 불심회(회장 박용기) 춘계법회가 3월 19일 백련사 무량수전에서 수계의식으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직접 참석해 불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수계란 참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이라며 "수계의 목적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며 계를 받음으로써 희망적인 삶과 인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운경 스님은 5계를 설하고 수계대표 3인에게 수계첩을 직접 전달했다. 상진 스님과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 봉원사 주지 현성 스님은 계사로 나와 수계대표 3인에게 각각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상진 스님은 축사에서 "종정 스님의 사자후를 가슴에 새겨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지고 삶의 지혜가 구족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기 불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계법회로 새로운 삶과 도약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대덕 스님들과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허 스님은 서대문구청에 백미 4kg 100포와 불심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태조산 각원사

개산조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

영결식 봉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

대한불교조계종 태조산 각원사 개산조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께서 세연이 다 하시어 불기 2570(2026)년 3월 27일(금) 영결 및 다비식을 경해 문도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을 직접 찾아와 큰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제방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원사 창건과 인재양성 및 교육,천안불교 발전에 헌신하신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49재 추모일정

• 초 재 2026년 3월 29일 (음. 2월 11일)
• 2 재 2026년 4월 5일 (음. 2월 18일)
• 3 재 2026년 4월 12일 (음. 2월 25일)
• 4 재 2026년 4월 19일 (음. 3월 3일)
• 5 재 2026년 4월 26일 (음. 3월 10일)
• 6 재 2026년 5월 3일 (음. 3월 17일)
• 49재 2026년 5월 10일 (음. 3월 24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각원사 대웅보전

문의 : 종무소 (041-561-3545)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경해문도회 회장 호진
주 지 지산 대원 합장